

【특 집】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세계체제이론’과 불교문화권 시각의 가능성 -

윤 영 인*

┃ 차 례 ┃

- I. 머리말
- II. 10~12세기 동아시아 조공관계의 허상과 실체
- III. 세계체제이론(World-systems theory)으로 설정한 국제질서의 범위
- IV. 불교문화권 시각에서의 접근
- V. 맺음말

국문초록

전근대 중화주의(中華主義)의 문화적 편견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곳이 바로 중원 한족왕조의 역사이다. 조공체제 이론은 이러한 일방적·자의적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한족중심적 국제질서의 이상과 위배되는 정치적 현실을 왜곡하였다. 전근대 내륙아시아, 즉 중원, 만주, 한반도는 물론 초원, 동남아시아, 중앙유라시아, 그리고 일본 등을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에 형성되었던 국제질서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조공체제 이론의 모순을 검토·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의 대안과 시각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고려, 대하, 그리고 카라키타이 등 ‘주변’의 시각과 ‘주변’과 ‘주변’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심’에 집착하는 한족중심적·문화론적 조공제도의 틀을 극복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는 ‘세계체제이론’과 불교문화권 시각 등 다양한 이론적 대안과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

*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하다. 나아가 다양한 이론과 시각의 도입과 분석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모순을 통해 조공체제의 틀에 의해 가려졌던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동아시아 국제관계, 조공체제, 맹약체제, 다원적 국제질서, 고려, 거란, 송, 대하, 금, 카라키타이 [서요], '세계체제' 이론, 불교문화권 시각.

I. 머리말

19세기 이전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를 그들의 세계질서에 편입하기 이전 전통왕조들의 사료에 등장하는 ‘조공’과 ‘책봉’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조공’의 기록이 ‘중주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우월성’의 증거였을까? ‘조공체제’(Tribute System) 또는 ‘중국적 세계질서’[혹은 ‘한족의 세계질서’(The Chinese World Order)]는 유교적 이념에 의거한 한족중심적 문화론(culturalism)을 기초로 하여 중원[한족왕조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국가와 지역을 ‘선진’ 중화문명에 동화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¹⁾ 한족왕조의 역사 서술은 종종 ‘중국’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료를 왜곡 또는 삭제하였고 전근대 중화주의(中華主義)의 문화적 편견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곳이다. 조공체제 이론은 이러한 한족왕조의 일방적·자의적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한족중심적 국제질서의 이상과 다른 정치적 현실을 왜곡한다.

조공체제이론은 정치·군사적 관계를 특정 문화(즉 한족문화)의 기준으로 이해하려는 인식론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페어뱅크(John K. Fairbank)는 전근

1) ‘조공체제’ 이론의 핵심 내용은 John K. Fairbank,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와 西島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社에 잘 정리되어 있다. 서구학계 문화론적 조공체제 이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피터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3 참조.

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세 가지 유형과 범위로 나누었다. 북방 초원의 유목민족을 ‘내륙 아시아 지역’(Inner Asian Zone)으로, 중국왕조와 산발적인 교류에 머물렀던 동남아시아, 그리고 특정 시기 일본과 서방 국가들을 ‘외부 지역’(Outer Zone)에 설정한 반면 문화·제도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한화’(漢化)를 이루었다는 한반도와 베트남을 ‘한족문화지역’(Sinic Zone)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 ‘한족문화지역’과 중원 한족왕조와의 관계에서 정치·군사적 요소는 문화·이념적 요소에 비해 부차적이지 일시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적 유사성이 국제관계에서 일관되게 혹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역사적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유목민 거란과 농경 정착민 한족 왕조의 경제·문화적 차이가 반드시 충돌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한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기도 하였다.²⁾

물론 이러한 ‘조공체제’ 이론의 문화론적 편견과 역사적 실체와의 모순에 대한 기존 학계의 비판이 있었다.³⁾ 레자드(Gari K. Ledyard)는 일찍이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반도 왕조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거시적 시각으로 중원-만주-한국의 삼각관계를 통해 중원 한족왕조의 팽창과 수축의 역사적 순환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⁴⁾ 바필드(Thomas Barfield)는 북방민족과 한족왕조의 관계를 기존의 “교역 혹은 약탈”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중원, 초원(몽골지역) 그리고 만주의 세 지역의 상호관계에 주목하여 이해하였다.⁵⁾ 한편 스탠든(Naomi Standen)은 10세기 거란과 송의 관계사 연구에서 그 시기에 정치적, 지리적, 민족적, 그리고 이상적 일관성을 가진 “중국”은 물론 현대적 개념의 “민족”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근대의 개념을 과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시대착오적 시각이야말로 올바른 역사인식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았다.⁶⁾ 나아가 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어느 시기보다도

2) Naomi Standen, 1999, “(Re)Constructing the frontiers of tenth-century North China” in *Frontiers in Question : Eurasian Borderlands, 700~1700*, MacMillan, pp.55-79.

3) 조공체제의 대한 이론적 비판은 James L. Hevia, 1995, *Cherishing Men from Afar*, pp.9-15 참조.

4) Gari K. Ledyard, 1983,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China among Equal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313-353.

5) Thomas Barfield, 1989,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Blackwell, pp.167~177.

‘조공체제’의 이상과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에 ‘조공체제’가 아닌 ‘다원체제’(Multistate System) 혹은 ‘맹약관계’(Treaty Relations)의 틀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⁷⁾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중국과 한국 등 현대국가의 국사영역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시 내륙아시아 세계를 구성한 한반도, 초원, 만주, 중원, 중원의 서남부와 동남아시아, 중앙유라시아, 일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활한 지역의 국제질서를 축소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0~12세기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아직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조공체제론을 비판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과 방법론의 도입이 절실하다. 이 글에서는 다원적 국제질서의 범위와 성격을 재조명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체제’ 이론과 불교문화권 시각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10~12세기 동아시아 조공관계의 허상과 실체

‘조공체제’ 이론은 ‘조공관계’라는 국제질서가 항상 존재하였다고 하는 ‘가정’을 ‘사실’로 인정하고 시작한다. 전해지는 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왕조의 문헌들은 조공체제의 용어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다시 조공체제의 ‘역사적 현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일종의 ‘순환논리’적 주장이다. 조공체제의 ‘실체’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 대표적 사례가 바로 군주 칭호, 조공과 책봉, 그리고 연호 시행의 기록들이다. 고려, 대하, 그리고 베트남 등 ‘주변’ 국가의 군주들은 천자를 자처한 시기도 있었

6) Naomi Standen, 2007, *Unbounded Loyalty: Frontier Crossings in Liao China*, University of Hawai'i Press, p.31.

7) Morris Rossabi, ed., 1983, *China among Equal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225~29;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6~21.

지만 일반적으로 중원 혹은 만주에 위치한 왕조에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으며 ‘종주국’의 연호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 사학자들은 물론 적지 않은 동아시아 역사학자들은 여전히 조공과 책봉의 기록이 종주와 복속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한다.⁸⁾ 즉 조공관계를 국제질서에서의 위상과 연결하여 이해하면서 각 국가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천황’의 칭호를 사용한 일본과 비교할 때 ‘국왕’에 불과한 한반도 왕조들은 ‘중국적’ 세계질서 중심의 영향을 받아 ‘자주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논리이다.⁹⁾

군주 칭호, 조공과 책봉, 그리고 연호시행 등 조공체제의 용어와 형식을 국가의 자주성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중원왕조의 군주가 국제질서의 유일한 최고 지위를 장악한다는 전통 유교 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10세기에서 13세기 초 몽골제국이전 시기의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관계에서는 ‘황제’가 ‘황제’를 ‘책봉’하기도 하였고, 2명, 혹은 3명의 ‘황제’가 동시에 존재한 그야말로 ‘황제병존(皇帝並存)’¹⁰⁾의 시대였다. 거란, 금, 송, 대하, 고려, 그리고 일본 등 여러 국가의 군주들은 모두 ‘황제’ 혹은 그에 비견하는 칭호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반드시 ‘제국’을 통치하는 군주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정치적 위상과 정통성을 과시하고자 한 허구적인 칭호에 불과한 경우도 많았다.

한문사료에 가득한 조공-책봉의 기록을 곧 국제질서에서의 지배와 종속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조공체제 용어에 얽매어 역사적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10세기 만주의 거란, 중원의 후진, 그리고 고려 삼국 간의 ‘책봉’ 관계는 이러한 조공체제 이론의 허구성을 잘 보여준다. 936년 거란의 태종은 후진(後晉)의 군주 석경당(石敬瑭)을 ‘대진황제(大晉皇帝)’로 책봉한 사실은,¹¹⁾ ‘황

8) Masayuki Sato, 1991, "Comparative Ideas of Chronology," *History and Theory* 30.3, p.290.

9) 久保常晴, 1967, 『日本私年号の研究』, 吉川弘文館, pp.46-48.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인식은 민족주의 사관에도 보이는데 단재 신채호 선생은 묘청(妙淸)의 건원칭제(建元稱帝) 주장을 ‘사대’의 반대인 ‘독립’ 정신의 표명으로 보았다(신채호, 2007, 『조선 역사상 1천 년 이래 최대 사건』 『조선상고문화사』, 비봉출판사).

10) 박재우, 2005, 「고려 군주의 국제적 위상」 『한국사학보』 20호, 54~58쪽.

제'라는 칭호가 당시 국제질서의 중심에 있던 최고 지위라는 의미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거란은 석경당이 후진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지원을 한 대가로 연운십육주의 할양받고 세폐(즉 조공품)를 획득하였다.¹²⁾ '황제' 석경당은 거란의 칸 혹은 황제를 아버지로 섬긴 '아황제'(兒皇帝¹³⁾)로 "거란의 꼭두각시"(nothing more than a puppet of the Khitan)에 불과하였던 것이다.¹⁴⁾

그런데 거란이 석경당을 '황제'로 책봉한 지 2년 후인 938년에 고려의 태조는 후진의 연호 천복(天福)을 수용하고¹⁵⁾ 그 다음 해인 939년에 정식으로 후진의 책봉을 받게 된다.¹⁶⁾ 여기서 거란·후진·고려 사이의 책봉관계를 보면 거란 황제가 후진의 군주를 '황제'로 책봉하였고, 후진의 '황제'가 다시 고려의 군주를 '국왕'에 책봉하였으니 고려는 당연히 거란의 조공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기 고려와 거란 사이에는 공식적인 조공·책봉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10세기 전반 고려와 거란의 공식 교류는 925와 926년의 2차례 고려 사행,¹⁷⁾ 그리고 922, 937, 939, 942년의 4차례 거란 사행이 전부였다.¹⁸⁾ 942년 거란 사신 30명이 낙타 50마리의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태조는 사신들을 귀양 보내고 낙타는 수도의 다리 아래에 묶어 굶겨 죽이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고,¹⁹⁾ 이후 40여 년간 양국 간에는 아무런 교류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10세기 중반 중원왕조 후진은 명목적으로 '천자'가 다스리는 '제국'이었으나 현실에서는 거란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

11) 『舊五代史』, 75권 985쪽, 『遼史』, 3권 38~39쪽.

12) 『遼史』, 4권 55~56쪽.

13) 『舊五代史』, 137권 1833쪽.

14) 『遼史』, 37권 437쪽, 76권 1252쪽; Denis Twitchett and Klaus-Peter Tietze, 1994, "The Liao,"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Cambridge University Press, p.70.

15) 『高麗史』, 2권 13b2-3.

16) 『高麗史』, 2권 13b6-8.

17) 『遼史』, 2권 21~22쪽. 이보다 앞서 915년(『遼史』, 1권 10쪽)과 918년(『遼史』, 1권 12쪽)에도 '고려'의 '내공'(來貢) 기록이 보이지만 이 사행들은 궁예의 '후고구려' 사절로 추정된다.

18) 『高麗史』, 1권 16b2; 『遼史』, 3권 41쪽, 4권 45쪽.

19) 『高麗史』, 2:14a9-b1. 이정신은 고려의 삼국 통일은 물리적인 통합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 내부 주도권 장악을 위한 분쟁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태조는 거란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전쟁을 유발하려 새 왕조의 통합을 시도하였다고 보았다(이정신, 2002, 「고려 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의 정세」, 『한국사연구』 118).

고, ‘국왕’의 나라였던 고려는 오히려 거란에 조공도 하지 않고 책봉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조공관계에서 ‘조공국’의 군주는 책봉을 받고 ‘종주국’의 연호를 시행하는 의무가 있었고,²⁰⁾ 외교관계의 단절은 종종 연호 시행의 폐지로 표명되곤 하였다. 고려는 왕조초기에 천수(天授), 광덕(光德), 준풍(峻豐)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거란과 송의 연호를 번갈아 시행하거나 병기하기도 하고, 아예 간지(干支)만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송이 건국되었을 때 고려의 광종은 황제로 독자적 연호를 시행하면서 수도인 개경을 황도로 불렀다. 그런데 후주를 계승한 송나라가 963년에 후주의 광종 책봉을 추인(追認)하자 고려는 그 해 12월에 송의 연호를 시행하고 ‘조공’을 시작한다.²¹⁾ 송의 군사적 압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려는 ‘황제국’을 표명하다가 스스로 송의 ‘조공국’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책봉과 연호시행을 단순히 국제질서의 계서적 현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정치적 정통성과 변경의 안보를 보장하는 공식 표현으로 본다면 이러한 고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²²⁾

12세기 초 동아시아의 급변하는 국제관계에서도 고려조정은 금의 공격을 받은 거란이 급격히 몰락하자 1116년에 거란의 연호를 폐지한 후에 송이나 금의 연호를 채택하지 않고 다만 간지(干支)를 사용하고 있다.²³⁾ 그 이유는 송과의 ‘조공-책봉’관계가 고려군주의 정통성이나 변경지역의 안보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고 금과의 관계도 아직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고려의 연호시행은 수동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종주국’의 책봉이 ‘조공국’에 상징적인 정통성을 부여한 것처럼 ‘조공국’의 연호 시행 역시 ‘종주국’의 정통성을 승인 혹은 부정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결국 다원적 국제관계에서 조공과 책봉은 일방적인 임명이 아닌

20)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1쪽.

21) 『高麗史』, 2권 29a6.

22) 朴星來, 1978, 「고려초의 曆과 年號」 『韓國學報』 10, 146쪽.

23) 『高麗史』, 14권 10b8-11a1.

호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연호의 시행은 국왕책봉을 전제로 하였고 국왕의 책봉은 왕조의 정통성과 변경 안보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²⁴⁾

대하와 송의 관계도 종종 ‘조공체제’의 용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실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세력균형이었다. 물론 송은 거란과 대하에 물자를 제공하면서 변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유지하였지만 맹약의 형식과 의례에서는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송을 멸망시킬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거란을 ‘동등한’ 존재로 수용한 반면, 그보다 ‘작은’ 대하에 대해서는 기존 중원의 한족왕조처럼 조공체제의 형식을 강요하여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 것이다. 명목적인 ‘동등관계’ 대신 경제적 실리를 선택한 대하는 서표(誓表)를 올려 송의 ‘우위’를 인정하지만 그 대가로 은 10,000냥, 비단 10,000필, 전(錢) 30,000관(貫), 차 20,000근의 세사(歲賜), 그리고 변경에서 소금을 교역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²⁵⁾ 여기서 대하에게 제공된 세사의 액수는 거란에 제공된 세페보다 적었지만 송의 물자 제공을 토대로 국경의 평화를 유지한 기본적 틀은 같았다.

하지만 조공체제 이론은 용어에 집착하여 ‘세페’를 제공받은 거란을 송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반면 ‘세사’를 받은 대하는 ‘조공국’으로 서술한다. 나아가 송으로부터 세페나 세사를 제공받지 못한 고려는 ‘충성스러운 제후국’(a loyal vassal)으로 묘사되었고 몇 학자들은 심지어 고려가 조공체제를 통해 ‘다국적 [국제관계의] 현실’(multi-state reality)로 부터 가리어져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²⁶⁾ 그러나 고려와 대하는 북방 정복왕조와 남쪽 한족왕조의 충돌과 경쟁을 적극 이용하여 외부의 견제와 압박에 대응하였고 양국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유사하였다. 실제로 『宋史』, 『遼史』, 『金史』는 종종 고

24) 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동양사학연구』, 126~30쪽.

25) 『宋史』, 485권 13989-90쪽.

26) Michael C. Rogers, 1978,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 The Case of Chin and Koryŏ,” *Korean Studies Forum*, 4, p.10 ;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112.

려와 하를 같이 묶어서 서술하였는데 몽골제국시기에 편찬된 이 사서들은 조공체제의 문화론적 선입관이 아닌 국제질서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宋史』는 대하가 송의 책봉을 받았지만 신복한 적이 없다고 기록하였고,²⁷⁾ 『遼史』 115권 마지막 부분 사관의 ‘논’은 이 두 국가의 ‘조공’이 형식에 불과하였다고 말하고 있다.²⁸⁾ 사료에는 고려와 대하 사이의 직접 교섭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 두 국가는 세력 균형을 통해 유지되었던 국제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결국 다원적 국제질서에서 고려와 대하의 상호 중요성은 ‘조공관계’의 틀을 벗어나 접근할 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원적 국제질서의 현실에서 송은 조공체제의 이상을 실현할 정치·군사적 힘을 갖추지 못하였다. 송은 후한 ‘하사품’의 보상을 통해 고려를 회유하려고 시도하지만 고려는 결코 한족왕조 송을 당시 국제질서의 유일한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거란의 위협에 처한 양국은 상대방을 잠재적 동맹국으로 보았지만 거란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고 하였기에 양국의 군사적 동맹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거란제국의 위협은 고려와 송이 서로를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게 하였지만 고려와 송에게는 거란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이었다. 다른 한편 송의 서북에 위치한 대하는 송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에 영토분쟁으로 인한 충돌이 있었지만,²⁹⁾ 고려와 송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았기에 당연히 군사적 충돌도 없었다. 즉 고려가 송에 우호적이면서 거란에 적대적이었던 이유는 송과의 ‘문화적 친밀감’도 거란의 ‘야만성’도 아니었으며 세력균형의 지정학적 현실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27) 『宋史』, 486권 14030쪽(“概其歷世二百五十八年, 雖嘗受封册于宋, 宋亦稱有歲幣之賜、誓詔之答, 要皆出於一時之言, 其心未嘗有臣順之實也”).

28) 『遼史』, 115권 1529쪽.

29) 『續資治通鑑長編』, 185권 4b-5a.

Ⅲ. 세계체제이론(World-systems theory)으로 설정한 국제질서의 범위³⁰⁾

조공체제 이론을 재조명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에 유용한 시각 중 하나가 ‘세계체제 이론’(World-Systems Theory [WST])이다. 세계체제 이론의 핵심은 여러 사회 사이에 형성된 다양한 연계망(network)이며, 무역과 전쟁, 정보 등의 상호작용이 복합적 사회구조를 재창조하는 데 기여하면서 지역적인 구조에 일어나는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연계망에는 생필품 연계망(Bulk Good Network [BGN]), 권위품 연계망(Prestige Good Network [PGN]), 정치·군사 연계망 (Political-Military Network [PMN]), 정보 연계망(Information Network [IN])이 있는데, 그 중 특히 PMN은 중심과 주변의 공식 교류, 즉 조공과 책봉의 사신 행렬과 공적 무역에 초점을 맞추는 조공체제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³¹⁾

세계체제 이론은 체제의 변혁 과정에서 ‘준변방’(semi-periphery)의 역할을 강조한다. ‘준변방’은 중심과 주변의 둘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 또는 두 중심 간에 위치한 지역이며 중심과 주변의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나거나, 중간적인 형태를 띠는 연결의 공간이다. 즉 ‘준변방’은 중심에 의해서 지배될 수도 있으며, 주변지역을 지배할 수도 있으며,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 따라 그 위상이 변화하기도 한다. 이 이론은 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거란이나 송에만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준변방’에 해당하는 한반도와 기타 지역의 시각과 역할에 주시하는 노력을 촉구한다.

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드문 이유는 일본과 동북아시아 다른 지역 사이에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

30) 이 장의 내용 일부는 윤영인, 2010,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이익주 외,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148~152쪽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31) Christopher Chase-Dunn and Thomas D. Hall, 1997, *Rise and Demise : Comparing World Systems*, Westview Press, pp.28, 52.

아니라 당시의 ‘중심’이었던 송이나 거란 등과 지속적인 ‘조공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에 ‘조공체제’의 시각에서 소홀시 되거나 무시된 것이 아닐까 한다. 조공과 책봉의 기록에 집착을 극복하고 10-12세기 내륙아시아에 존재 하였던 PMN 연계망 범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이해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정치·군사적 교류를 토대로 ‘동아시아’의 PMN을 설정한다면 그 범위는 북방의 초원, 중원, 내륙아시아, 한국, 일본, 동남아 지역에게까지 확대될 것이다.³²⁾ 각 국가의 대외정책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집권층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PMN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나아가 외부적 영향예를 들면 이웃 국가의 분열과 통일)과 내부적인 요인(예를 들면 중심에서 “주변부”로 확대되는 권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PMN연계망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GN과 IN연계망의 범위는 모두 PMN연계망보다 넓었다. 조공체제에서 경제적 교류는 대부분 정치적 동의 아래 이루어졌고 지배계층이 소비한 권위품은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며 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기에 PMN의 범위에서 발생하곤 하였다. 그러나 PGN은 종종 정치적 관계의 범위를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교역에서 중앙집권세력의 독점이 약화되고 사무역이 PGN에 참여하면서 PMN보다 거대한 연계망을 형성하곤 하였다. 나아가 IN에는 국가가 주체가 되는 공적인 영역과 비공적 영역이 존재하는데 공적 영역에서의 정보는 외교관, 스파이, 그리고 정치권력의 지원을 받은 탐험가 등이 담당하였고 비공적 영역에는 순례자, 학생, 성직자, 상인, 용병 등이 참여하면서 기술과 지리적 지식들이 PMN보다는

32) 배튼 (Batten)은 이 이론을 전근대 일본사에 적용하여 지리적 특수성으로 “고립된”(isolated) 일본의 기존 개념을 재조명하였는데 현대 민족국가의 명확한 국경과는 달리 전근대 역사에서의 국경이 매우 모호함을 인식하고 그 경계(border)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가를 외부와의 연계망을 통해 찾고자 하였다(Bruce L. Batten, 2003, *To the Ends of Japan*,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146-152).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입되었다.

10-12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PMN연계망의 틀로 접근해 보면 당시 국제질서가 조공과 책봉의 상하관계가 아닌 군사적 세력균형을 기반으로 한 호혜주의와 실리주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2세기 초 송은 여진과 연합하여 ‘연운십육주’를 탈환하려고 시도하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거란은 1114년과 다음해에 고려에 군사적 도움을 요청한다.³³⁾ 고려는 이러한 요청을 모두 묵살하였을 뿐 아니라 1116년에는 오히려 압록강유역의 내원성과 보주를 점령하였다. 금이 이내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의 수도를 점령하면서 한족왕조는 회하 이남으로 밀려났고 고려는 금을 이전 거란과 동등한 위상으로 인정한다.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던 여진에게 오히려 조공을 하게 된 현실을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³⁴⁾ 그러나 고려의 대금 정책은 북방에서의 충돌을 피하고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기존 거란과의 관계에 보이는 실용주의 정책의 연속이었다.

회하 이북 중원의 중심지역과 많은 한족 인구를 통치하게 된 금은 스스로를 국제질서의 중심으로 자처하였고 1203년에 금 황제는 왕조의 오행이 북송의 “화(火)”를 계승한 “토(土)”에 속한다고 선언하며 남송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하였다.³⁵⁾ 그러나 금은 다원적 국제질서의 현실을 금나라 중심의 일원적 질서로 개편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12세기 초 국제질서에서 고려와 대하는 여전히 국제질서의 ‘균형자’였으며 여기에 거란의 황족 아율대석(耶律大石)이 세운 카라키타이[서요(西遼)]³⁶⁾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

33) 『高麗史』, 13권 35a6-b2, 14권 3b4-9, 6a6.

34) 금은 고려가 이전 거란에게 대한 ‘조공국’의 예의를 자신들에게는 갖추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한다(『금사』, 135권 2885쪽). 실제 1125년 5월 고려가 금에 보낸 국서는 표문(表文)의 형식이 아니었으며 금에 신복한다는 내용도 생략되어 있다(『고려사』, 15권 10a4-6, 17권 18a2-3, 24a2-4).

35) Hok-lam Chan, 1984, *Legitimation in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36) 카라키타이는 1211년까지 88년 동안 현재 중국의 신강지역을 중심으로 탕구트, 아랄해, 발하쉬호, 그리고 힌두쿠시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통치한 국가인데 중국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카라키타이 대신 ‘西遼’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카라키타이의 국호에 대해서는 Michal Biran,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pp.215-17 참조.

하였다.

이 시기 국제관계사를 조공체제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은 금과 송에 ‘조공’하지 않은 카라키타이(1124~1218)의 역할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12세기 초 국제질서에서 대하 서북쪽 위치한 카라키타이는 시종일관 대거란제국의 부흥을 표명하였고 내륙아시아 지정학적 질서의 중요한 축이었다. 건국 초기 1134년 3월 야율대석은 7만의 기병을 동원하여 금을 치려고 하였지만 1만 리를 행군한 카라키타이의 군대는 성과 없이 회군하였고 『遼史』는 그 이후 카라키타이가 더 이상 금을 공격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기록하지만 다음 해인 1135년(혹은 1136년) 겨울 카라키타이가 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기록이 보인다.³⁷⁾ 1143년 야율대석의 사망 소식을 그 다음 해에 위구르로부터 전해들은 금나라 희종(熙宗)은 점할한노(粘割韓奴)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회유를 시도하였지만 카라키타이는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례한 행동과 위협을 가한 사신을 처형하였다.³⁸⁾ 당시 대부분의 국가들이 형식적으로나마 금의 우위를 인정한 상황에서 카라키타이는 금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1156년에도 카라키타이와 금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으며,³⁹⁾ 1161년 금에 반란을 일으킨 거란족 장수 살팔(撒八)은 카라키타이로 도피하려고 하였는데⁴⁰⁾ 이는 카라키타이가 당시 금의 통치를 받고 있던 거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금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대하는 비록 금을 ‘섬기고’ 있었지만 거대한 이웃을 항상 잠재적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금은 그들과 카라키타이 사이에서 완충지대를 형성한 대하와 카라키타이의 동맹을 우려하였다. 실제 카라키타이와 대하의 동맹을 경계한 금은 1177년 대하와의 국경에 위치한 수덕(綏德)의 각

37) 徐夢莘, 『三朝北盟會編』, 178권 7a; Karl Wittfogel, *History of Chinese Society*, p.638. 그런데 劉浦江은 이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2006-1, 『遼朝亡國之後的契丹遺民』 『燕京學報』, 新10期, 140쪽).

38) 『金史』, 4권 82쪽, 121권 2638쪽.

39) 宇文懋昭, 『大金國志』, 14권 107쪽.

40) 『金史』, 132권 2825쪽, 133권 2849~51쪽.

장(權場)을 폐지하기도 하였는데 양국 간의 무역은 1181년에 이르러서야 재개된다.⁴¹⁾ 그리고 1185년에는 카라키타이가 대하와 동맹을 맺고 대하의 영토를 통과하여 금에 공격을 시도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⁴²⁾ 그 다음해 송은 대하가 카라키타이 원정군에게 길을 열어준다면 대하의 군주에게 ‘황제’ 칭호를 주고 양국 간의 ‘동등 관계’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⁴³⁾ 즉 송은 불과 60여 년 전 여진과 동맹을 맺으면서 멸망시키고자 하였던 적국 거란을 계승한 카라키타이⁴⁴⁾와의 연맹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세력균형으로 유지된 국제질서의 현실에서 금의 기본 정책은 정복이나 충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회유였다. 금은 현실적으로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를 유지한 세력균형의 재편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거란을 지원하였던 대하에 대한 공격도 없었고 명목적인 조공을 통해 우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이전 송과의 변경지역 영토를 할양하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⁴⁵⁾ 이는 금 조정의 일관된 정책으로 고려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고려가 압록강 유역의 보주성을 점령한 후 금에 ‘조공’을 하는 전제로 소유권을 인정하였던 사실과 상통한다.⁴⁶⁾ 즉 금이 송 그리고 고려와 대하와

41) 『金史』, 35권 683쪽, 486권 14026쪽.

42) 『宋史』, 50권 1114쪽, 134권 2870~1쪽.

43) Karl Wittfogel and Feng Chia-sheng, 1949, *History of Chinese Society*,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pp.647~8.

44) 보통 거란을 ‘부족’ 이름으로, ‘요’(遼)를 거란족이 세운 정복왕조 제국의 국호로, 그리고 ‘요’가 망한 후 유민들이 중앙유라시아로 이주하여 세운 나라의 국호는 카라키타이 혹은 ‘서요’로 알고 있다. 송의 기록에 의하면 거란은 “契丹”(大契丹)과 “遼”(大遼)를 번갈아 국호로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遼史』에는 947년 거란의 태종이 국호를 “大遼”라고 하였다는 기사를 제외하고는 국호 변경의 기록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거란문자와 여진문자의 기록에는 거란의 국호가 시종일관 “哈喇契丹” 혹은 “大契丹”, “契丹國”, “契丹”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거란제국의 국호가 거란어로 시종일관 카라키타이였고 거란이 망한 후 야율대석이 중앙유라시아에 세운 나라의 이름인 카라키타이 역시 거란의 원래 국호를 그대로 계승하여 사용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劉浦江, 2001-2, 「遼朝國號考釋」, 『歷史研究』, 40~43쪽; 劉鳳翥, 2006, 「從契丹文字的解讀談遼代契丹語中的雙國號—兼論“哈喇契丹”」, 『東北史研究』; Michal Biran, 2005,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15~17 참조).

45) 민병훈, 1996, 「서하·금의 교빙관계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권, 12~13쪽.

46) 박한남, 1996, 「고려 인종대 대금정책의 성격—보주양역(保州讓與)과 투입호구추쇄(投入戶口推刷)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

모두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본적 틀은 세력균형의 국제질서에서 이루어진 상호 타협의 결과였다. 소위 조공체제의 위계적 질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만 명목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국가 사이에는 조공과 책봉이라는 형식으로, ‘동등한’ 관계의 국가 간에는 맹약의 형식으로 상대방의 정치적 정통성과 국경의 안보를 보장한 것이다.

10~12세기 거란과 금, 한족왕조 송, 고려와 대하, 그리고 카라기타이 등 여러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국제질서의 범위는 ‘내륙아시아 세계체제’의 PMN, PGN 혹은 IN의 범위를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설정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른다. 특히 여러 연계망이 중첩되는 국제질서(‘내륙아시아 세계체제’)의 범위는 교류가 단절 혹은 급격히 감소하는 공간에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이러한 경계에는 산맥, 바다, 사막 등의 지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변경을 통제하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려는 중앙권력의 정치적 노력을 간과할 수 없다. 다양한 형태의 교역, 정보의 교환과 전달과정 그리고 연계망의 형성과 해체 과정에 대한 고찰은 ‘조공체제’ 이론의 문제점을 통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V. 불교문화권 시각에서의 접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 ‘조공체제’가 강조하는 정치적 관계를 넘어 문화적 교류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문화와 종교적 교류는 종종 국제질서의 경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정치적 세력 확장이 지역 내 문화 융합을 촉진한 반면 문화적 교류는 정치적 확장의 기반이자 정당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조공체제는 문화적 경계를 정치적 경계와 동일하게 설정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영토가 문화적 영역보다 넓었던 때가 많았고 또 반대 경우도 보인다. 나아가 정치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 범위의 차이와 충돌은 국제질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역학관계의 복잡한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는 다양한 시각의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0-12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문화교류적 접근에서는 특히 초원(유목)과 농경(정착) 문명의 경계를 초월하였던 거대한 불교 문화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0-12세기 불교는 왕실과 엘리트계층의 종교로 크게 흥성하였고 특히 다민족으로 구성되었던 제국들의 정치적 정통성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⁷⁾ 나아가 대외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였는데 소위 불교권의 범위는 고려, 거란, 대하는 물론 송과 중원 서남쪽에 위치한 대리국, 서역(중앙아시아)의 카라키타이, 고창(高昌)의 위구르 그리고 인도 북부지역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이 시기 국제교류에서는 특히 승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공식 외교사절에 승려가 포함되는 경우는 물론 국가사절로 승려가 임명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1085년 송을 방문한 고려의 대각국가 의천과 승려 신분의 일본사신들이며,⁴⁸⁾ 대하 역시 위구르와 거란과의 관계에서 승려들을 외교사절로 임명하곤 하였다.⁴⁹⁾

거란과 대하의 군주들은 자신을 보살의 화신 혹은 전륜성왕(Cakravartin) 또는 “부처칸”(Burqan Khan)으로 칭하면서 불교를 후원하면서 제국의 내외에 널리 전파하였다. 카라키타이는 중앙아시아의 주요 이슬람지역을 모두 통치한 첫 비(非)이슬람 국가였는데 거란족의 지배계급은 후대 차가타이 몽골 등 다른 외래 정복정권과는 달리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았다.⁵⁰⁾ 카라키타이의 불교관련 기록과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불교가 이전 거란제국처럼 카라키타이에서도 흥성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거란의 불교건축이 대부분 목재로 세워진 것을 감안하면 그 흔적이 남아

47) Ruth Dunnell, 1996,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University of Hawai'i Press, p.156.

48) 『宋史』, 491권 14137쪽 (“是後連貢方物, 而來者皆僧也”); 遠藤隆俊, 2008, 『義天と成尋: 十一世紀東アジアの國際環境と入宋僧』 『동국사학』 44, 105~134쪽; 최병헌, 1991, 「大覺國師 義天의 渡宋活動과 高麗·宋의 佛教交流」 『진단학보』 71, 359-372쪽.

49) 『遼史』, 22권 267쪽; 『宋史』, 490권 14114~14118쪽; Elizabeth Pinks, 1968, *Die Uiguren von Kan-chou*, Otto Harrassowitzs, pp.106-115.

50) Michal Biran, 2005,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p.171.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⁵¹⁾ 전해지는 단편적 기록들은 모두 카라키타이의 황실과 거란귀족들이 계속 그들의 전통신앙과 불교를 신봉하였음을 말해준다.⁵²⁾ 대하도 불교를 국교로 신봉하였고 고유의 문자를 창제한 후 대대적인 번역사업을 진행하였다.⁵³⁾ 전해지는 대하문자 문헌의 대부분이 불교관련 내용에 국한되어 있기에 그동안 이를 국제관계 연구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드물었지만 불교문화적 시각의 접근을 통해 기존 한문사료의 선입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공식적 조공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려와 송의 관계사 연구에서 이러한 공식관계의 부재를 “보충”하려는 듯 문화적 교류가 강조되어 온 반면, ‘조공’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고려와 북방 정복왕조 사이의 문화적 교류는 매우 소홀시 되어왔다. 하지만 고려와 거란의 외교사절을 통한 정기적 접촉은 분명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을 것이다. 거란은 고려가 보낸 ‘조공품’에 대한 답례로 중원의 산물인 관복과 비단은 물론 안장 등 유목민의 생활방식과 밀접한 물건들을 회사품으로 보내왔다. 『거란국지』(契丹國志)는 거란이 고려국왕에게 보낸 선물 목록에 장식을 갖춘 허리띠, 관복, 말과 안장, 활과 화살 등의 무기, 비단 200필, 옷감 100필, 양 200마리, 그리고 약간의 술과 과일을 열거하였다.⁵⁴⁾ 거란은 고려국왕을 책봉할 때 항상 수레와 관복, 안장, 활 화살 등을 보내왔다.⁵⁵⁾ 매년 고려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신사(生辰使)도 유사한 선물을 가지고 왔으며, 3년에 한번 파견하였던 횡선[사]사(橫宣[賜]使)는 양 2000마리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⁵⁶⁾ 금이 고려

51) Nancy S. Steinhardt, 1997, *Liao Architecture*, University of Hawai'i Press, pp.31~187.

52) Michal Biran, 2005,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pp.173~174, 178.

53) Ruth Dunnell, 1996,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p.38. 20세기 초 스타인(Aurel Stein)과 펠리오(Paul Pelliot)는 돈황에서 그리고 러시아의 코즐로프(Kozlov)가 카라고토(Kharakhoto) 지역을 발굴하면서 대량의 탕구트 문헌을 발견하였다. 1970년 말부터 중국학계의 탕구트 역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탕구트문자에 대한 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음과 뜻을 대부분 해독하였다. 韓小忙은 『西夏文正字研究』에서 총 6,066개(正字 5861개, 別體 169개, 訛體 36개)의 탕구트 문자를 열거하고 분석하였다(韓小忙, 2004, 『西夏文正字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54) 『거란국지』, 21권 3a-b.

55) 『高麗史』, 12권 6b8-7a1, 33b7-8, 72권 14b4-9.

에 보낸 회사품의 구체적 내용은 1127년과 1128년의 기록에서 관복, 서대(犀帶), 금은, 비단, 의대와 포백과 은그릇 등이 보인다.⁵⁷⁾

12세기 초 고려에서의 북방민족 풍습의 영향은 어느 정도였을까? 『고려사』는 특히 지배계급 사이에 성행하였던 거란 문화에 대한 모습을 잘 보여 주는데 거란이 멸망한지 3년이 지난 1129년 5월 고려 인종은 조서를 내려 신하들에게 거란의 퇴폐한 습관을 버릴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⁵⁸⁾ 고려에 전해진 거란의 문화는 아마도 비트포겔이 말한 “제3의 문화”로 거란의 부족문화와 중원 한족문화가 융합된 결과였을 것이다.⁵⁹⁾ 예를 들면 거란은 중원으로부터 도자기의 제작법을 전수받았지만 유목전통의 가죽으로 만든 물병 모양을 그대로 모방한 계관호(雞冠壺) 혹은 피낭호(皮囊壺)라는 그들 고유의 도자기가 크게 유행하였다.⁶⁰⁾ 또 938년 중원의 한족 관료가 거란의 수레 제작 임무를 맡았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거란 조정이 고려 국왕에게 선물로 보냈던 수레도 한족의 문화양식과 거란인의 생활과 전통이 혼용된 산물이었다.⁶¹⁾

현존하는 문헌기록은 매우 소략하지만 고려에 전해진 거란문화의 구체적 모습은 도자기, 금속공예, 불경과 불탑 등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불교는 거란과 고려에서 국교로 크게 흥성하였기에 상호간에 접촉과 문화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란 불교는 원래 중원지역의 불교에 기반을 두었으나 11세기 중반에 이르러 그들 고유의 전통을 수립하였고 이내 송나라를 뛰어넘는 대장경을 제작하였다. 거란대장경은 고려에 전해져 고려대장경의 편찬에 지대한 영향

56) 박한남, 1995, 「고려전기 ‘황선사’ 소고」 『阜村申延澈教授 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501~24쪽.

57) 『高麗史』, 15권 26a6, 38b4.

58) 『高麗史』, 16권 3a2-8.

59) Karl Wittfogel, 1949,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 Liao*, p.20.

60) 王胤卿, 2004, 「契丹民族雞冠壺的文化詮釋」 『內蒙古社會科學』 2004年 第1期, 15-17쪽 ; Adam T. Kessler, 1993, *Empires Beyond the Great Wall*,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p.98-99.

61) 『遼史』, 55권 901쪽.

을 미치기도 하였지만 고려와 거란불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소략하여 그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최근 거란과 고려 사이의 불교 문화적 교류에 대한 일련의 연구들은 당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불교적 교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1~12세기 고려의 불탑이 송보다는 거란 불탑의 양식과 더 많은 유사성이 보여준다는 연구는 물론, 고려의 도자기가 중원남부의 영향만이 아니라 11세기 고려 도자기의 제작기술, 기종, 장식기법과 문양 등에서 거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11~12세기 고려의 정병(淨瓶), 동경, 장도, 등자 등에 나타나는 금속공예의 우수성은 거란조정이 보낸 선물과 고려에 정착한 거란유민들의 영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⁶²⁾ 즉 거란과 고려의 관계에는 조공체제의 틀이 강조하는 공식 사신왕래와는 별도의 매우 밀접한 문화적 왕래가 있었으며 그 매개체는 유교적 전통이 아닌 불교의 사상과 예술이었던 것이다.⁶³⁾ 그러므로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불교문화권의 성격 그리고 불교문화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에는 고고학과 미술 등 다른 학문분야와의 학제 간 협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문화권 시각으로 국제관계 연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먼저 교류의 주체였던 특정 인물이나 사건, 혹은 불교사상과 예술의 상호 흐름 등 구체적인 주제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예로 문수보살의 도량(道場)으로 인식되었던 중국 산서성의 오대산이라는 공간의 역사적 실체와 중요성에 대한 고찰은 10-12세기 불교문화권 교류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⁶⁴⁾ 오대산은 이미 5세기부터 중요한 불교성지로 7세기에 이르러 동아시아 전역은 물론 티베트와 인도의 순례자들이 찾았던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종교와 문화 전통이 교차한 공간이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당과 송대

62) 윤영인, 2014, 「고려 전기 대거란관계와 북방문화의 영향」 『동양문화연구』 19, 145-46쪽.

63) 남권희, 2013, 「契丹과 高麗의 佛敎文獻 交流」 『서지학연구』 56, 5-42쪽.

64) Karl Debreczeny, 2011, "Wutaishan: Pilgrimage to Five Peak Mountai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6, pp.1-133.

한족지역 불교전통에서의 오대산이 가지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오대산의 문수보살 신앙은 특히 북방민족이 세운 정복왕조와 몽골,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⁶⁵⁾ 실제 송나라가 오대산으로 통하는 길을 봉쇄하자 대하 조정은 11세기에는 따로 그들만의 ‘오대산’을 국내에 따로 조성하기도 하였고,⁶⁶⁾ 거란과 몽골도 수도 인근에 그들만의 ‘오대산’을 ‘복제’하기도 한다.⁶⁷⁾ 북방민족과 정복왕조에서 오대산의 문수보살 신앙을 통한 정치적 정통성의 형성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전통이 당시 국제질서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내륙아시아 여러 제국의 정통성을 유교적 이념의 ‘책봉’ 혹은 다원적 국제관계의 ‘맹약’이라는 의례나 타협으로만 이해하려는 기존 시각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불교 문화권 시각은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V. 맺음말

10~12세기 동아시아(혹은 내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조공체제”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한문사료에 내재된 편견과 왜곡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여러 국가 사이에 이루어진 다양한 정치적 타협과 문화적 교류의 산물이었다. 특히 10-12세기 거란과 금 시대의 ‘맹약체제’는 전통적 조공체제와는 역사적 배경과 내용, 전개에 있어서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맹약체제’ 혹은 “다원적 국제관계”의 성립은 한

65) Raoul Birnbaum, 1983, “Buddhist Meditation Teachings and the Birth of ‘Pure’ Landscape Painting in China” in *Studies on the Mysteries of Manjusri,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 Monograph 2*; Raoul Birnbaum, 1996, “Visions of Manjusri on Mount Wutai” in Donald Lopez, ed., *Religions of China in Practi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bert Gimello, 1992, “Chang Shang-ying on Wu-ta’i Shan,” in Susan Naquin and Chen-fang Yu, ed., *Pilgrims and Sacred Sites in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89-149.

66) Ruth Dunnell, 1996,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pp.35-36.

67) Isabelle Charleux, 2011, “Mongol Pilgrimages to Wutai Shan in the Late Qing Dynast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6.

족중심적 조공체제의 와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는 고려나 대하, 카라키타이 등 ‘주변’의 입장이 반영된 시각에서 재조명하면서 ‘중심’에 집착하고 ‘중심’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한족 중심적·문화론적 조공체제 틀을 극복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조공체제 이론에 의한 형식적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세력균형과 실리주의에 입각한 각 국가의 외교정책을 포괄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근대 국가의 기준으로 설정된 일국사적 입장과 현재주의적 시각을 극복하고 일본, 티베트, 나아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존재한 정치집단들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는 비한족국가들에 대한 연구조차 거의 한문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한족중심적 시각, 즉 조공체제론의 극복을 위해서는 비한문사료, 특히 북방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자(거란, 탕구트, 그리고 여진문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비한문사료들은 희소성과 해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사료적 의의를 가진다.⁶⁸⁾

2,000여 년 이상 지속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조공체제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대적 특성을 무시하고 이론적 틀에 끼워 맞추는 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조공체제 이론은 오직 ‘중심’과 ‘주변’의 공식적 조공관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소위 ‘주변’과 ‘주변’ 사이의 관계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고려시대 국제관계 서술은 고려가 ‘조공’하였던 거란, 송, 금 그리고 몽골제국과의 관계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원적 국제질서의 중요한 축이었던 카라키타이, 대하 그리고 일본 등 기타 ‘주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매우 소략한 현실이다. 고려와 대하의 교류에 대한 문헌 기록의 부재를 곧 이들 국가 사이에 교류가 없었거

68) 愛新覺羅烏拉熙春·吉本道雅, 2011, 『韓半島から眺めた契丹・女眞』, 京都大學學術出版會. 거란은 920년 한자를 모방한 표의문자 거란대자를, 그리고 약 5년 뒤에는 초보단계의 표음문자인 거란소자를 창제하였다. 아직 거란문자의 완전한 해독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만으로도 한문기록에만 의존해온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단서를 제공한다.

나 서로 상대방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중원왕조가 편찬한 한문 사료에는 누락되거나 매우 소략하게 기록되었지만 정치·군사적 세력균형의 국제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던 ‘주변국’들의 시각과 그들이 남긴 비한문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몽골제국 이전 3세기 동안 지속된 다원적 국제관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세계체제 이론과 불교문화권 시각의 접근 등 다양한 이론과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조공체제’의 용어로 포장된 사료를 비판하고 재해석하는 노력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1972, 3권, 아세아문화사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1972, 아세아문화사
『대금조벌록(大金弔伐錄)』, 2001, 中華書局
『삼조북맹회편(三朝北盟會編)』, 1987, 上海古籍出版社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 『四庫全書』本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 1979~95, 中華書局
『송사(宋史)』, 1977, 中華書局
『요사(遼史)』, 1974, 中華書局
『자치통감(資治通鑑)』, 1995, 中華書局
- 남권희, 2013, 「契丹과 高麗의 佛敎文獻 交流」 『서지학연구』 56
민병훈, 1996, 「서하·금의 교빙관계에 대하여」 『중앙아시아연구』 1
박성래, 1978, 「고려초의 曆과 年號」 『韓國學報』 10
박용운, 1995, 「고려 송 교빙의 목적과 사절에 대한 고찰」 『한국학보』 81 & 82
박재우, 2005, 「고려 군주의 국제적 위상」 『한국사학보』 20
박한남, 1995, 「高麗 前期 ‘橫宣使’ 小考」 『阜村申延澈教授 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월서각
_____, 1996, 「고려 인종대 대금정책의 성격—보주양여 (保州讓與)와 투입호구추쇄 (投入戶口推刷)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3
신채호, 2007, 「조선 역사상 1천 년 이래 최대 사건」 『조선상고문화사』, 비봉출판사
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東洋史學研究』 第101輯
_____, 2010,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이익주 외,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3, 「하-송의 5년전쟁 (1039-44)과 11세기 동아시아 세력균형」 『만주연구』 16
_____, 2014, 「고려전기 대거란관계와 북방문화의 영향」 『동양문화연구』 19
이정신, 2002, 「고려 태조의 건국이념의 형성과 국내의 정세」 『한국사연구』 118
피터운(윤영인),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시아연구』 45-3
최병헌, 1991, 「大覺國師 義天의 渡宋活動과 高麗·宋의 佛敎交流: 晋水淨源·慧因寺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71

- 久保常晴, 1967, 『日本私年号の研究』, 吉川弘文館
- 今西龍, 1918, 「高麗太祖 訓要十條について」 『東洋學報』 8
- 西島定生, 1983,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 愛新覺羅·烏拉熙春·吉本道雅, 2011, 『韓半島から眺めた契丹・女眞』,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遠藤隆俊, 2008, 「義天と成尋：十一世紀東アジアの國際環境と入宋僧」 『동국사학』 44
- 田中健夫, 1975,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 河内良弘, 1992, 『明代女眞史研究』, 同朋舍出版
- 王胤卿, 2004, 「契丹民族鷄冠壺的文化詮釋」 『內蒙古社會科學』 2004年 第1期,
- 劉鳳翥, 2006, 「從契丹文字的解讀談遼代契丹語中的双國号—兼論“哈喇契丹”」 『東北史研究』 2006年 第2期
- 劉浦江, 2001-1, 「遼朝亡國之后的契丹遺民」 『燕京學報』 新10期, 2001年 5月
- _____, 2001-2, 「遼朝國号考釋」 『歷史研究』, 2001年 6期
- 韓小忙, 2004, 「西夏文正字研究」, 陝西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Barfield, Thomas, 1989, *The Perilous Frontier :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Cambridge MA & Oxford, UK : Blackwell
- Batten, Bruce L., 2003, *To the Ends of Japan : Premodern Frontiers, Boundaries, and Interactions*.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Biran, Michal, 2005,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 Between China and the Islamic Worl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rnbaum, Raoul, 1996, “Visions of Manjusri on Mount Wutai,” in Donald Lopez, ed., *Religions of China in Practic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83, “Buddhist Meditation Teachings and the Birth of ‘Pure’ Landscape Painting in China” *Studies on the Mysteries of Manjusri, Society for the Study of Chinese Religions Monograph 2*
- Chan, Hok-lam, 1984, *Legitimation in Imperial China : Discussions under the Jurchen-Chin Dynasty (1115-1234)*,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Charleux, Isabelle, 2011, “Mongol Pilgrimages to Wutai Shan in the Late Qing Dynasty,”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no.6
- Chase-Dunn, Christopher and Thomas D. Hall, 1997, *Rise and Demise : Comparing World Systems*. Boulder, CO : Westview Press
- Debreczeny, Karl, 2011, “Wutaishan : Pilgrimage to Five Peak Mountai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6

- Dunnell, Ruth,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 Buddhism and State Formation in Eleventh-century Xia*,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Fairbank, John K., ed., 1968, *The Chinese World Order :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mello, Robert, 1992, "Chang Shang-ying on Wu-ta'i Shan," in Susan Naquin and Chen-fang Yu, ed., *Pilgrims and Sacred Sites in Chin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via, James L., 1995, *Cheerishing Men from Afar : Qing Guest Ritual and the Macartney Embassy of 1793*, Durham and London : Duke University Press
- Kessler, Adam T., 1993, *Empires Beyond the Great Wall*,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Ledyard, Gari K., 1983,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inks, Elizabeth, 1968, *Die Uiguren von Kan-chou in der frühen Sung-zeit*, Wiesbaden : Otto Harrassowitz
- Rogers, Michael C., 1961, "The Regularization of Koryŏ-Chin Relations (1116-1131)" *Central Asiatic Journal* 6
- _____, 1978,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 The Case of Chin and Koryŏ" *Korean Studies Forum* 4
- Rossabi, Morris, ed. 1983, *China among Equals :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ato, Masayuki, 1991, "Comparative Ideas of Chronology" *History and Theory* 30.3
- Standen, Naomi, 1999, "(Re)Constructing the frontiers of tenth-century North China," in *Frontiers in Question : Eurasian Borderlands, 700-1700*, ed. by Daniel Powers and Naomi Standen, London : MacMillan
- _____, 2007, *Unbounded Loyalty : Frontier Crossings in Liao China*,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teinhardt, Nancy S., 1997, *Liao Architecture*,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witchett, Denis, 2000, "Tibet in Tang's Grand Strategy" in Hans van de Ven, ed., *Warfare in Chinese History*, Leiden : Brill
- Denis Twitchett and Klaus-Peter Tietze, 1994, "The Liao,"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g Gungwu, 1983, "The Rhetoric of a Lesser Empire : Early Sung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ittfogel, Karl and Feng Chia-sheng, 1949,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 Liao (907-1125)*, Philadelphia :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Yun, Peter I., 1998, “Rethinking the Tribute System : Korean States and North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 600-1600”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투고일 : 2015년 11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2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2월 20일

■ Abstract ■

New Approaches for the Study of the Pre-modern Multi-state System in East Asia : Perspectives of the “World-systems Theory” and International Buddhist Cultural Sphere

Peter Yun

The premodern 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 have often been approached exclusively from the tribute system model and influenced by ahistorical perspectives of modern nation-states. However, such frameworks often simplify and distort the greater world order in the vast region that encompassed not only traditional East Asian states but also various Inner Asian states such as Khara Khitai and Tibet. In order to fully appreciate the complexity of historical reality of multi-state world order, we must make serious efforts to develop alternative frameworks and perspectives that will enable us to rethink the still influential but problematic model of the tribute system. One way to overcome the China-centered and culturalistic framework of the tribute system is to bring our attention to perspectives of the “peripheries” and relations between the “peripheries” without little or no intervention from the “center.”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s include the “world-systems” theory and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Buddhist cultural sphere. Application of these theories and perspectives will force us to resolve conflicting interpretations, and such efforts may enable us to appreciate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premodern Inner Asian interstate relations that have heretofore been obscured by the tribute system model.